

#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 Wife's Emotional Support an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강 사 홍 성 례  
교 수 유 영 주

Major in child & family, Kyunghee University

Lecturer : Hong, Sung Rye

Professor : Yoo, Young Ju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분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In an effort to better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in the family, this study investigated wife's emotional support an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Subjects were 232 husbands in Seoul.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wife's emotional support to their husbands and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ere generally high. And wife's emotional support to their husbands had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husband's income and wife's employment were negatively related to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It was suggested the importance of the emotional support in the spousal relationships.

#### I.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남녀평등사상,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취업 여성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경제력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 및 부부의 역할구조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자급자족의 기능을 하여, 가족생활과 경제생활의 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경제생활의 장인 직장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가족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과 역할 중 많은 부분은 사회제도에 이전되었다. 따라서 가족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성적

육망을 충족시켜주는 등의 역할로 그 기능이 축소된 듯 보인다. 즉, 전통 가부장제사회에서 남편은 가장 권을 가지고 가족원들을 지도하고 명령하며 부인은 순종하고 내조하는 일이 규범화되었고 성별에 따른 엄격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현대 가족은 우애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부부간에 융통적인 역할수행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정서적 지지와 애정, 그리고 오락적인 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man-as-worker"의 관점에 의하면, 직장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타진하는 투쟁의 장소(arena)이다(Erikson, 1980; Levinson, 1978; Vaillant, 1977). 가정은 반대로, "man-the-worker"가 직장에서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매일 돌아오는 장소인 안식처를 조성한다(Barnett & Baruch, 1987; Barnett et al., 1992).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가족원의 경험을 변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가정은 누구를 위한 안식처이며 애정적 천국인가를 묻고 있다. 여성보다 가사노동을 훨씬 덜 하는 남성에게는 가정이 안식처 혹은 적어도 여가의 장소로 경험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여성에게 가정은 상당량의 일을 해야 하는 장소(Thorne, 1982)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식처 기능은 어느 특정 성(性)에 기초한 역할부여의 의미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부부들은 "도구적" 역할에 기초한 결혼으로부터 "동료적"의 역할을 강조한 결혼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은 이렇게 정서적 표현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으며, 가족만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정서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Berger, Berger & Kellner, 1973; Lasch, 1979; Erickson et al., 1993).

개인이나 가족적 맥락에서 정서적 지지는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복지증진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반면 그 만큼 가족의 중요성에 대

한 기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들어 가족 내에서의 남편들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족연구에서도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1980년대 이전에는 가족내의 남편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그리고 가족학자들은 남편의 존재를 가족기능(family functioning)에 주변적으로 생각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구자들은 가족에서 남편들이 직·간접적으로 자녀들과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남편의 가족참여가 그들 삶의 다른 양상들과 어떻게 교차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하였다(Coltrane, 1996). 이는 남성애 대한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가족환경에서의 남성들에게 초점을 두게 될 것이고, 가장 의미있다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 내에서 남성을 살펴보는 것이 남성연구분야에 중요한 구성요인이 될 것이라는 Lewis(1986)의 예측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상의 변화(한경혜, 1997)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김순주, 1994; 홍성례, 1995; 손유지, 1998)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함께, 가족속에서 남편에 대한 재정적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편들이 실제로 가족생활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여러 양상중 정서적 지지의 수행이 부부관계 특히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한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지지원으로부터의 지지가 그의 심리적 상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Ruehlman & Wolchik, 1988)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서정아, 1998; Barnett et al., 1992)나 부인의 지지(Ulbrich, 1988)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지지의 근원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으로 선정하여, 남편이 지각하고 있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어느 정도이며,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의 부부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부부관계의 상호성을 파악하여, 부부관계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이 특정한 성(性)에 기초한 역할이라기 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개별가족 차원에서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부부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한 공동협조의 중요성 인식에 도움을 줄 것이다.

## II. 선행연구고찰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정서적 지지와 부부관계,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 1. 정서적 지지와 부부관계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결합을 말하며 새로운 인생의 시발점이 된다. 또한 결혼이란 당사자 두 사람에게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서 기대되는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의미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배우자간의 동료감, 애정, 자아성취, 행복 등 개인의 정서적 만족 추구에 두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 가족으로부터 우애적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애정적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가족구성원의 만족 여부가 달려 있으며, 또한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도 관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역할수행문제보다는 상호간에 얼마나 정서적으로 만족한 관계를 이루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서병숙, 1993).

다른 가족 기능들은 사회변화 과정에서 쇠퇴해 온 반면, 결혼과 가족 내에서 친밀하고 견고한 상호관계에 대한 요구는 강조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서는

현대 가족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Blood & Wolfe, 1960;Hochschild, 1983), 가족학자들은 부부관계의 기능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이론적 의의를 탐구해 왔다(Parsons & Bales, 1955;Blood & Wolfe, 1960;Lewis & Spanier, 1979;Staines & Libby, 1986; Erickson, 1993). 또한 학자들은 주관적인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질적·기술적 테크닉을 사용해 왔다(Blood & Wolfe, 1960;Goode, 1963).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정서에 기초한 현상 연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의적·조작적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동안 정서적 지지를 특징짓는데 이용해 온 광범위한 용어들과 정의들로 설명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학자들은 정서적 지지를 “정서적 유지(emotional sustenance)”(Goode, 1964), “표현적 역할”(Parsons & Bales, 1955;Zelditch, 1955), “정신위생 기능”(Blood & Wolfe, 1960), “치료적 역할”(Nye, 1976), 그리고 “위안의 기능(stroking function)”(Bernard, 1971)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해 왔다. 이 각각의 용어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복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조사자들은 자주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에 관심을 두어 왔다. 하지만 이런 행위의 수행이 지지제공자나 부부관계 그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덜 알려졌다(예, Brown & Harris, 1978;House, 1981;Vanfossen, 1981;Williams, 1988;Lee, 1988;Erickson, 1993).

그러므로 정서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들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phart(1977)은 결혼생활을 함께 나눔, 육구충족, ‘정서적 안정감’의 견지에서 고려하면서, 만일 이러한 목표들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인은 그들의 결혼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서병숙, 1993). 또한 Lein et al.(1974)는 “현대의 산업 문화에 있는 남성은 그들의 가족환경

(setting)에서 그들의 주요한 정서적, 개인적, 정신적 만족을 구한다”고 밝혔다.

최규련(1988)의 연구에서는 여러 역할영역중 사회 정서적 영역이 과제지향적 영역보다 결혼만족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며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정서적 영역에는 애정·성적 역할, 치료적 역할 등이 포함되며, 이 역할들이 실제로 현대 가족에서 부부관계의 본질적 요소인 감정적 유대, 인격적 융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혼한 부부와 결혼중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Kitson과 Holmes(1992)의 종단적 연구 결과를 보면, 결혼이 서로에게 도구적 과업보다 더욱 어려운 역할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애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도록 배우자에게 굉장한 압력을 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의 질 인식에 대한 정서적 역할의 영향을 연구한 Erickson(1993)은 남편의 정서적 역할 수행이 부인의 결혼 복지에 가장 강한 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사람들은 정서적 지지를 요구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House, Umberson, & Landis, 1988; Kessler, McLeod, & Wethington, 1985). 더욱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지자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Kessler & McLeod, 1984), 여성은 가족들을 위한 사회 정서적 지지의 주요 공급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Belle, 1982, 1987; Bernard, 1971; Hochschild, 1983). Hochschild의 연구(1983, 1989)는 정서에 기초한 기술(skill)의 성공적인 이행이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며, 일정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Erickson, 1993).

De Jong-Gierveld(1986)은 남편, 애인 그리고 고독이라는 연구에서 남성 응답자들의 외로움이 단하나의 관계, 즉 여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지각한 질과 강한 관련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응답자들의 외로움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관계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자신의 배우자인 부인에게 더 많이 의지함을 제

시하는 결과로, 만일 이렇게 남성들이 중시하는 부부관계가 실패한다면,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강렬한 외로움의 감정을 더 많이 지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가정생활에서 부부 서로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부부관계 및 가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 가족생활에서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정서적 지지의 수행이 부부관계 특히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살펴본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의 근원을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으로 한정하여, 남편들이 실제로 가족생활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결혼만족도

현대 부부관계는 잘 수행되지만 한다면 핵가족내의 상호관계가 밀접하고 강한 특성으로 인해 원숙하고 깊이 발전할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 있어서 상호 기대에 어긋나는데 대한 불만족과 좌절감으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가족내에서의 인간관계의 범위는 부부와 자녀관계로 축소되어 가족의 안정은 부부 당사자들의 감정조정과 인간적인 융화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시되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부부외의 다른 가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부관계의 여러 양상들 중 결혼관계에서의 다양한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념화한 결혼만족도(혹은 행복도, 적응도, 성공도)의 연구는 결혼 및 가족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이다(Spanier & Lewis, 1980; Adams, 1988; Mckenry & Price, 1988; Nye, 1988; 정현숙, 1997a).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에 있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오

경희(1997)의 연구에서는 주부 연령이 29세이하인 가정의 결혼생활만족도가 30세 이상인 가정보다 더 높았으며, 남편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정이 40세이상인 가정보다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결혼지속년수와 결혼만족도와 관계에 있어, 송말희·이정우(1986),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되는 반면 김화자·윤종희(1991)는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오경희(1997)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9년이하인 가정이 10년이상인 가정보다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평균을 비교해 보면, 9년이하인 경우 만족도가 높다가 10년-29년인 경우에 낮았다가 30년이상인 경우 다시 높아졌다.

남편의 직업과 부부관계를 살펴본 Aldous et al. (1979)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직업적인 성공과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에는 곡선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극도로 높거나 아주 낮게 직업적으로 성공한 남편은 어느 정도 직업적인 성공을 보인 남편에 비해 보다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성의 직업과 가족과의 관계를 연구한 Mortimer (1986)는 직업과 가족생활 간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가정생활에 대한 직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직업적인 경험과 지향이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김명자, 1985;정용재, 1986; Kingston & Nock, 1987;한남재, 1988;임정빈·이종숙, 1988)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영향(이정우, 1974;Houseknecht, 1981;Spitz, 1988;이미숙, 1985;정순형, 1987;이선주, 1988;이희정·이숙현, 1995)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또한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전춘애·박성연, 1996)도 있으며, 부인의 취업 그 자체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변인, 예를 들면, 직업의 종류(박미령, 1988;강은령, 1988), 가사조력자의 유무(임정빈·정혜정, 1986), 남편의 성역할(서동인, 1985), 부인의 직업만족도(서동인, 1985;강은령, 1989), 남편의 지지와 취업동기(서동인, 1985;정현숙, 1997b)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한 연구들(대한가정학회, 1990)도 있다.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전춘애·박성연, 1993;송말희·이정우, 1986;오경희, 1997;고정자·김갑숙, 1999)가 있는가 하면, 부부의 교육수준은 결혼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정연, 1987;조은숙, 1990)도 있어 연구결과에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소득분류의 차이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이 어느 정도 높을 때 결혼만족도가 증가함을 제시하고 있다.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정이 501만원 이상인 가정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였고, 김화자·윤종희(1991)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59만원 미만의 가정보다 180만원 이상의 가정이 결혼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 김경숙·이정우(1993), 그리고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나 결혼만족도 혹은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말희·이정우(1986)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도 높아졌고, 이옥진의 연구(1982)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나 결혼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특성, 각 변인들의 분류방식, 혹은 측정도구가 연구마다 동일하지는 않음에 의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단순비교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교, 소득수준, 결혼지속년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인의 정서적 지지 변인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남편의 연령, 부인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과 부인의 종교,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소득, 결혼지속년수 등의 변인들이 포함된다.

〈연구문제 1〉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측정도구

##### 1) 부인의 정서적 지지 척도

부인의 정서적 지지척도는 Erickson(1993)이 개발한 정서 지지(emotion work)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7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 1, 항상 그렇다 = 7)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에서 부인의 정서적 지지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 .94$ 로 높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3)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지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결혼생활 전반에서의 개인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특히 KMSS는 세 문항으로 실시하기 간단하며, 단일차원의 척도이다. KMSS의 우리나라

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한 김득성(1989)의 연구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고되었다. 실제로 KMSS를 이용한 연구에서 KMSS는 .92-.95의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정현숙, 1997a).

KMSS는 3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하여,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응답은 매우 만족(7)에서 매우 불만(1)의 7점 척도로 높은 점수는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 .92$ 로 나타났다.

##### 3)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척도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가장 낮은 하류층에 속한다 = 1(下的 下층), 가장 높은 상류층에 속한다 = 7(上的 上층)이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조사 실시 이전에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 30명을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 내용을 수정하였고, 본 조사는 2000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결혼생활과 직장생활하는 남편들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가 중심이므로 자녀유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눈덩이 표집을 이용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50부를 회수하여,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32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을 산출한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방법으로는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검중,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분석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들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남편의 연령은 30대가 35.4%, 40대 35.0%, 50대이상 22.3%, 20대가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은 30대 연령층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9.5%, 50대이상 14.1%, 20대 12.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남편의 경우에는 대졸이상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52.6%인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 이외에 고졸 31.8%, 전문대졸 4.9%, 중졸이하 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 33.6%, 전문대졸 9.7%, 중졸이하 8.9%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 남편의 경우 사무직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노무직 39.4%, 전문직 8.0%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55.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직 24.5%, 노무직 16.0%, 전문직 4.0% 순이었다.

종교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50.7%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4.7%, 불교 15.2%, 천주교 7.6%, 기타 1.8%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에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33.0%, 기독교인 경우 29.4%, 불교는 21.3%, 천주교는 16.3%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23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남편의 연령	20대	16( 7.3)	부인의 연령	20대	27(12.3)
	30대	78(35.4)		30대	97(44.1)
	40대	77(35.0)		40대	65(29.5)
	50대이상	49(22.3)		50대이상	31(14.1)
	합 계	220(100.0)		합 계	220(100.0)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0( 4.4)	부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0( 8.9)
	고졸	86(38.1)		고졸	108(47.8)
	전문대졸	11( 4.9)		전문대졸	22( 9.7)
	대졸이상	119(52.6)		대졸이상	76(33.6)
	합 계	226(100.0)		합 계	226(100.0)
남편의 직업	노무직	89(39.4)	부인의 직업	전업주부	111(55.5)
	사무직	119(52.6)		노무직	32(16.0)
	전문직	18( 8.0)		사무직	49(24.5)
	합 계	226(100.0)		전문직	8( 4.0)
	합 계	226(100.0)		합 계	200(100.0)
남편의 종교	기독교	55(24.7)	부인의 종교	기독교	65(29.4)
	천주교	17( 7.6)		천주교	36(16.3)
	불교	34(15.2)		불교	47(21.3)
	무교	113(50.7)		무교	73(33.0)
	기타	4( 1.8)		합 계	221(100.0)
	합 계	123(100.0)			

주: 무응답에 따라 문항마다 사례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

## 2.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먼저,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한 후,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각 문항별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부인의 정서적 지지 평균점수는 5.41(표준화한 값)로 백분위 점수의 77.33점에 해당하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남편들은 부인의 정서적 지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남편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5.69(표준화한 값)로 81.29(백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남편은 자신의 결혼관계나 결혼생활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각 문항별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를 살펴 보았다(<표 3>).

남편에 대한 부인의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항들은 모두 평균점수가 5.06이상(7점척도)으로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이 부인의 정서적 지지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문항은 '내 아내는 미래의 우리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평균 5.69)로 미래의 부부관계에 대한 의사소통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내 아내는 좋은 친구이다'(평균 5.64)에 관한 문항으로써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를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편이 부인의 정서적 지지를 가장 낮게 느끼고 있는 부분은 '내 아내는 내가 불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평균 5.06)라는 문항으로, 부인이 남편 자신의 불안한 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에 비해 잘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표 2>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N = 232				
내 용	평균 (표준편차)	표준화한 값 (표준편차)	백분위점수	범 위
부인의 정서적 지지	81.20 (15.75)	5.41 (1.05)	77.33	15 - 105
남편의 결혼만족도	17.07 (3.69)	5.69 (1.23)	81.29	3 - 21

<표 3> 부인의 정서적 지지의 경향

N = 232	
문 항 내 용	평균 (표준편차)
1. 내 아내는 나에게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을 털어 놓는다.	5.19 (1.33)
2. 내 아내는 나에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5.36 (1.55)
3. 내 아내는 나로 하여금 불안감, 권태, 우울감에서 벗어나도록 애쓴다.	5.16 (1.64)
4. 내 아내는 자신이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한다.	5.41 (1.42)
5. 내 아내는 내가 불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06 (1.48)
6. 내 아내는 나에게 용기를 준다.	5.51 (1.41)
7. 내 아내는 나를 칭찬해준다.	5.29 (1.46)
8. 내 아내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준다.	5.43 (1.47)
9. 내 아내는 내가 문제에 직면할 때 조언을 해준다.	5.56 (1.39)
10. 내 아내는 나의 견해를 존중한다.	5.56 (1.30)
11. 내 아내는 나에게 애정이 담긴 행동을 한다.	5.39 (1.42)
12. 내 아내는 나의 행복에 관심을 표현한다.	5.59 (1.33)
13. 내 아내는 미래의 우리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한다.	5.69 (1.24)
14. 내 아내는 좋은 친구이다.	5.64 (1.33)
15. 내 아내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5.51 (1.41)



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내 아내는 나에게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을 털어 놓는다'(평균 5.19)는 문항과 '내 아내는 나로 하여금 불안감, 권태, 우울감에서 벗어나도록 애쓴다'(평균 5.16)는 문항에서도 다른 문항들에 비해 부인의 정서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에 제시)

그 결과, 남편에 대한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는 높은 정적 상관( $r=.67,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상관관계표

		N=232														
변인	정서적 지지 문항 <sup>1)</sup>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결혼만족도	.67***	.49***	.21***	.42***	.44***	.43***	.58***	.55***	.55***	.50***	.68***	.59***	.55***	.47***	.65***	.53***

\*\*\* $p<.001$

주: 각 문항의 내용은 〈표 3〉을 참조바람.

부인의 정서적 지지에 관한 각 하위의 15문항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하위 15문항과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상관( $r=.42 - .68$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문항중 '내 아내는 나의 견해를 존중해준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10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관계에서 있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하위문항은 '내 아내는 나에게 대화할 것을 제한한다'의 내용을 포함한 문항2로 나타났

다.

###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표 5〉에 제시).

먼저, 부인의 정서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부인의 종교, 남편의 소득,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 결혼지속년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 남편과 부인의 연령,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여부, 그리고 남편의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인의 심리적·정신적 안정이 남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편의 소득에서도 부인의 정서적인 지지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의 소득이 3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원-250만원 미만일 경우보다 부인의 정서적인 지지가 더 높았다. 하지만 가족의 주관적인 계층의식에 있어서는 약간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남편이 자기 가족의 주관적인 계층이 하층과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N=232

변 인	구 분	사례수	부인의 정서적 지지	남편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연령	20~30대	106	82.13(16.70)	17.75(3.68) <sup>a</sup>
	40대	77	81.21(14.23)	16.92(3.27) <sup>ab</sup>
	50대 이상	49	79.18(16.05)	15.77(4.04) <sup>b</sup>
	F 값			.58(n.s.)
부인의 연령	20-30대	136	82.34(16.09)	17.54(3.71) <sup>a</sup>
	40대	65	79.68(13.69)	16.91(2.84) <sup>a</sup>
	50대 이상	31	79.42(18.23)	15.32(4.61) <sup>b</sup>
	F 값			.86(n.s.)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96	79.60(14.11)	17.01(3.51)
	대졸이상	130	82.48(16.99)	17.23(3.80)
	t 값			-1.35(n.s.)
부인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28	80.84(14.64)	17.18(3.43)
	대졸이상	98	81.82(17.39)	17.08(3.99)
	t 값			-.46(n.s.)
남편의 직업	노무직	89	78.92(14.24)	16.41(3.80)
	사무·전문직	137	82.40(16.71)	17.49(3.62)
	t 값			-1.62(n.s.)
부인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111	83.44(13.56)	17.92(3.03)
	취업	89	80.62(18.06)	16.69(4.27)
	t 값			1.22(n.s.)
남편의 종교	있음	110	82.59(16.51)	16.85(4.32)
	없음	113	80.29(15.13)	17.40(2.96)
	t 값			1.08(n.s.)
부인의 종교	있음	148	83.17(15.80)	16.95(4.04)
	없음	73	77.47(15.30)	17.39(2.87)
	t 값			2.55**
남편의 소득	150 만원미만	70	82.19(15.23) <sup>ab</sup>	17.66(3.75)
	150-250 만원미만	76	77.47(18.25) <sup>b</sup>	16.55(3.70)
	250-350 만원미만	44	83.73(14.89) <sup>ab</sup>	16.96(4.04)
	350 만원이상	20	88.30(10.55) <sup>a</sup>	16.80(3.87)
	F 값			3.14*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	하층	29	84.52(13.46) <sup>a</sup>	17.93(3.24) <sup>a</sup>
	중층	191	81.45(16.09) <sup>a</sup>	17.20(3.59) <sup>a</sup>
	상층	12	69.33( 9.83) <sup>b</sup>	12.83(3.79) <sup>b</sup>
	F 값			4.18*
결혼지속년수	10년미만	102	83.35(14.41) <sup>a</sup>	17.91(3.15) <sup>a</sup>
	10-20년 미만	62	82.42(17.42) <sup>ab</sup>	16.69(4.29) <sup>b</sup>
	20년이상	66	77.35(15.44) <sup>b</sup>	16.25(3.60) <sup>b</sup>
	F 값			3.17*

\*p&lt; .05 \*\*p&lt; .01 \*\*\*p&lt; .001

이는 가족의 주관적인 계층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 또한 결혼지속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가 20년 이상된 경우보다 부인이 남편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연구(유영주 외, 1998)에서 애정·성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30대가 좀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친족관계 및 지역사회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40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부부관계 외의 다른 역할들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에 몰입하기 보다는 다른 관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낮아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과 부인의 종교, 그리고 남편의 소득 등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남편과 부인의 연령,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여부,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결혼지속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 자신의 연령이 20-30대인 경우가 50대 이상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의 연령이 20대-30대와 40대의 경우가 50대 이상의 경우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평균점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부의 연령이 증가하고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는 점차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혼지속년수에도 반영되는데, 결혼생활이 10년 미만인 남편들이 10-20년 미만과 20년 이상된 남편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된다는 송말희·이정우(1986),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편이 사무·전문직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노무직을 가진 경우보다, 그리고 부인이 전업주부인 경우가 취업한 경우보다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 자신이 자기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자신의 가족이 하층과 중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남편들이 상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남편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다고 해서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반영한 결과이며, 사회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들(송말희·이정우, 1986; 이옥진, 1982)과는 상이한 결과라 하겠다.

##### 5.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

이번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남편의 종교유무, 부인의 종교유무, 남편의 소득, 가족의 주관적 계층의식, 결혼지속년수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 변인이다. 본 회귀식에서 남편의 연령과 부인의 연령은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결혼지속년수와 상관관계가 너무 높고, 다중공선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변인 중에서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여부, 남편의 종교 유무, 부인의 종교 유무는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sup>2)</sup>처리하였다. 또한 각

- 1) 남편과 부인의 연령 및 결혼지속년수 간의 상관계수는 .93 - .94로 매우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변수화한 명목 척도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직업이 사무·전문직인 경우를 1, 노무직인 경우 0. 부인이 취업을 했을 경우 1, 전업주부인 경우 0. 남편의 종교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 부인의 종교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

〈표 6〉 관련변인과 결혼만족도와 의 상관관계표

변 인	N=232											
	1	2	3	4	5	6	7	8	9	10	11	
1. 남편의 결혼만족도	1.00											
2. 부인의 정서적 지지	.67***	1.00										
3. 남편의 교육수준	.05	.11	1.00									
4. 부인의 교육수준	-.00	.06	.62***	1.00								
5. 남편의 직업	.08	.06	.49***	.31***	1.00							
6. 부인의 취업여부	-.17*	-.10	.09	.14	.15*	1.00						
7. 남편의 종교	-.09	.01	.09	.05	.07	-.06	1.00					
8. 부인의 종교	-.01	.13	.14	.12	.06	-.02	.61***	1.00				
9. 남편의 소득	-.09	.13	.23**	.14	.12	-.09	-.09	.17*	1.00			
10. 가족의 계층의식	-.12	.00	.23**	.06	.26***	.09	.07	.09	.48***	1.00		
11. 결혼지속년수	-.19**	-.15*	-.15*	-.25***	.09	.02	.06	.23**	.19**	.23**	1.00	

\*p< .05 \*\*p< .01 \*\*\*p< .001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투입된 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회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부인의 정서적 지지로서 상관계수  $r=.67$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부인의 취업여부( $r=-.17$ )와 결혼지속년수( $r=-.1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여부와 결혼지속년수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각 독립변인들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회귀식에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 남편의 소득, 그리고 부인의 취업여부의 세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정서적 지지( $\beta=.67$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편의 소득( $\beta=-.17$ ), 그리고 부인의 취업여부( $\beta=-.14$ ) 순이었다(〈표 7〉).

〈표 7〉 관련변인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남편의 결혼만족도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T
1. 부인의 정서적 지지	.16	.67	12.41***
2. 남편의 소득	-.34	-.17	-3.19**
3. 부인의 취업여부	-1.04	-.14	-2.55**
상수		6.57	
F값		56.64***	
R <sup>2</sup>		.48	

\*\*p< .01 \*\*\*p< .0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인이 전업주부일 때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앞의 일원변량 분석에서 남편의 소득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좀더 정교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들 3개의 독립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48%로, 본 회귀식은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남편이 부부관계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의 여러 기능과 역할중 정서적 지지가 현대 가족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가족연구에서는 가족생활에 있어 정서적 지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리고 가족속에서 남편에 대한 재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편들이 실제로 가족생활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여러 양상중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양쪽 모두가 결혼초에는 높고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결과는 종단적인 연구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단언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결혼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부부관계 외의 다른 역할들이 증가하면서 부부관계에 몰입하기 보다는 다른 관계들로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부부간에 어느 정도 소원해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결혼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결혼초의 정서적 관계와 결혼만족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들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측면에서 부부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부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남편에 대한 부인의 정서적 지지는 남편의 소득이 3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원-250만원 미만일 경우보다 부인의 정서적인 지지가 더 높았지

만, 남편 자신의 소득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볼 때에는 분석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에서 남편의 소득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귀분석에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쳐 남편 자신의 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소득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남편이 자기 가족의 주관적인 계층이 하층과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높았으며, 남편의 결혼만족도에서도 가족이 하층과 중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남편들이 상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남편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실제 남편 소득의 객관성과 계층의식의 주관적 평가간의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이나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높다고 해서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인 안정이나 부(富)가 부부사이의 결혼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빈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돈이 없다면 가족은 질병, 임시취직, 가사보조물의 고장 같은 재정적 소모에 계속 불안울 느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편들은 자신을 형편없는 부양자로 보고 냉담해지고 신경과민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며, 그러한 냉담은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상호지지적인 교환을 손상시키기도 한다(Weiten & Lloyd, 199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나 가족의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낮다고 해서 부부관계 상호성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의 제공이나 결혼만족도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부인의 취업여부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부인의 55.5%가 전업주부임)으로 인하여 부인의

직업유형 및 특성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 보지는 않았지만, 취업 그 자체보다는 취업과 관련된 변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임정빈·정혜정, 1986; 박미령, 1988; 강은령, 1989; 정현숙, 1997b)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에 대한 좀더 정교한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인의 정서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부인의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하는 결과이며, 남편이 부부관계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정서적 역할 수행이 부인의 결혼 복지에 가장 강한 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Erickson(1993)의 연구와 남편, 애인 그리고 고독이라는 연구에서 남성 응답자들의 외로움은 단하나의 관계, 즉 여성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지각한 질과 강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한 De Jong-Gierveld(1985)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정서적으로 독립적으로 사회화된 남성들이 함께하는 파트너와의 성적·정서적으로 친밀한 유대를 제외하면, 정서적으로 요구되는 관계로 들어서는 것을 대체로 주저한다는 생각(Chodorow, 1978; Rubin, 1983)과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De Jong-Gierveld, 1986)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실패한다면, 남편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을 통해 남편들에게 있어 이런 주요한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한국 가족에서의 부부관계 특성상 부인의 표현적 역할에의 기대와 수행을 감안할 때 부인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비교적 높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인의 정서적 지지간의 상관관계가  $r = .67$ 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서로 동일한 차원의 변인이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정서적 지지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정서적 지지는 이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인의 정서적 지지 변인을 서로 별개의 변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부인의 정서적 지지였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이 부인만이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연구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정서적 지지에 관련된 변인들을 좀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부 상호간에 정서적 지지가 부부관계나 결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검증하며, 부부 또는 부인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호의 정서적인 지지를 측정하는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원만한 부부관계는 개인에게 만족을 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가족원들에게 인격의 성장과 완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불편함은 물론 다른 가족원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결혼은 무엇보다도 배우자간의 인격과 애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결혼생활에서도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와 노력에 의하여 어느 한쪽만이 아닌 서로가 만족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대한가정학회 편(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 경향. 서울:교문사.  
고정자·김갑숙(1999). 부부의 심리적 복지와 삶의

-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6), 59-76.
- 김득성(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 85-94.
- 김순주(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 · 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병숙(1993). *결혼과 가정*. 서울:교문사.
- 손유지(1998). 남편의 가정내 역할인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말희 · 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33-47.
- 오경희(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10-220.
- 유영주 · 김순기 · 홍성례(1998). 한국 도시 부부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27집*.
- 이희정 ·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임정빈 · 이종숙(1989). 확대가정 부부의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전춘애 · 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81-96.
- 정현숙(1997a).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현숙(1997b). 맞벌이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 최규련(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서울:사회문화연구소.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nett, R. C. & Baruch, G.K.(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9-40.
- Barnett, R.C, Marshall, N.L. & Pleck, J.H. (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358-367.
-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trane, Scott(1996). *Family man: fatherhood, housework, and gender equ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 Jong-Gierveld, J(1986). Husbands, lovers, and loneliness. *Men in families*. Beverly Hills, Sage.
- Erickson, R.J. (1993). Reconceptualizing family work: The effect of emotion work on perceptions of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888-900.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Hochschild, A. R.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 Kitson, G. C., with Holmes, W. M.(1992). *Portrait of divorce*. New York:Guilford Press.
- Lewis, Robert A.(1986). Introduction:What men get out of marriage and parenthood. *Men in families*. Beverly Hills, Sage.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New York:Sage Publications.
- Rubin, L. B.(1983). *Intimate strangers:Men and*

- women together*. New York:Harper & Row.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572.
- Thorne, Barrie (1982). Feminist rethinking the family. in Thorne B. and Yalom, M.(eds). *Rethinking the family*. New York, Longman.
- Weiten, Wayne & Lloyd, Margret A.(1997).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Adjustment in the 90s*.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